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사 양성에 대하여

조항덕*

1. 서론

이 지구상의 여러 국가 중에서 프랑스만큼 언어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드물 것이다. 프랑스는 헌법 2조에 “프랑스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는 오래 전부터 프랑스어가 국가의 단합을 이루게 하고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하다는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매개체라는 프랑스 국민들의 정신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94년 프랑스의 여론 기관인 SOFRES의 조사에 의하면 97%의 프랑스 국민이 모국어에 밀착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65%는 프랑스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하였고 70%는 프랑스어 권이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78%는 유럽에서 강력한 영어에 대해 다언어주의를 채택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미국을 위시한 영어의 강세로 프랑스어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손상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프랑스어는 프랑스인 6천만 명¹⁾을 포함

* 숙명여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하여 전세계 52개국의 프랑스어권(francophonie)에서 약 2억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당당한 세계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의 프랑스어에 이르기까지 그 위상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프랑스어는 12-15세기에 문학 언어, 16세기에는 행정 언어, 18세기에는 유럽 상류층의 언어 등으로 시대에 따라 달리 불리며 위상이 변화하였다. 19세기에는 러시아의 상류층이 프랑스어를 사용하였고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외교어로 자리를 잡았다. 그런 프랑스어가 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연합(U.N.)이 설립되고 이를 계기로 영어에 그 위치를 빼앗기게 된다. 프랑스어가 국제사회에서 점차 세력을 잃게 되자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1994년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La loi du 4 août 1994)을 채택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언어가 바로 여러 문화 유산 가운데에서도 국가의 결속을 가져오는 요소라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프랑스에서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되고 교육기관에서 학습되어지는 언어는 국어인 프랑스어를 비롯하여 지방어(langues régionales)로 브르통어, 알자스어, 바스크어, 카탈랑어, 오시탕어, 코르시카어가 있다.²⁾ 공식적인 지방어 외에도 각 지방 특유의 방언(dialectes)이 있는데 그 수가 약 20여 개나 된다. 프랑스 국내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의무화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의 적용도 지방어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1) 프랑스의 해외 영토(DOMTOM) 인구까지 포함한 1999년도 통계임.

2) 바스크어, 브르통어, 알자스어, 카탈랑어, 오시탕어는 1961년 법에 의해 교육기관에서 학습되어지고 있고 코르시카어는 1974년 이래로 학습되어지고 있다(Quid, 1999: 1239).

2. 프랑스의 언어 정책

프랑스의 언어 정책은 중세로부터 시작되는데 사실은 프랑스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중세에는 글을 깨우친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며 성직자나 소수 엘리트들이 라틴어로 된 문장을 읽고 쓰는 정도였다. 또한 행정에 관한 서류도 라틴어로 작성되어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일반인들에게 행정의 절차에 관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이를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결국 프랑스는 1539년 빌레르-코트레(Villers-Cotterêts) 칙령을 통하여 사법이나 행정에 관련된 업무 처리를 프랑스어로 하도록 결정한다. 이러한 조치는 강력한 교회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왕권을 강화하는 기능도 하게 되어 국력의 중앙 집중화에 도움을 준다. 1634년에는 리슐리외(Richelieu)에 의해 아카데미 프랑세즈(Académie française)가 설립되어 프랑스어의 표준화 작업을 시작한다. 보즐라(C. Vaugelas : 1585~1650)를 위시한 문법학자, 철학자, 문인들이 이 작업을 맡아 진행한다. 점차로 프랑스어는 라틴어에 못지 않게 그 표현이 풍부하고 논리적이며 명확한 언어라는 생각이 널리 유포된다. 프랑스가 언어에 관련된 전문가를 동원하여 체계적으로 표준화 작업을 실시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어가 처음부터 널리 쓰인 것은 아니었다. 국가의 언어 정책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국내에서 프랑스어를 쓰는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프랑스 대혁명이 한창인 1790년 그레파르(H. Grégoire : 1750~1831) 신부의 주도하에 실시된 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국민 2천 3백만 가운데 프랑스어를 제대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3백만 명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지방어를 쓰고 있었다. 이에 혁명 정부는 프랑스어를 국어로 사용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탈레랑(C. Talleyrand-Périgord : 1754~1838)은 초

등학교 교육이 프랑스어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프랑스어의 확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하였고 그 어휘와 용법이 풍부해졌다. 1885년에는 프랑스에서 초등교육이 의무화되었고 프랑스어는 점차 국어로 자리를 잡아간다. 1914년 발발된 제 1차 세계 대전은 프랑스 국민들의 대대적인 이동을 가져왔으며 이와 아울러 프랑스어가 전 국민들에 의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자리잡는 계기가 된다.

3. 프랑스어 교육

프랑스에서는 7세부터 16세까지 의무교육이 실시된다. 즉,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기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기간 동안에 프랑스어에 대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선 초등학교의 교육부터 알아보자. 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은 초등학교에서 그 기초를 닦는다. 유치원에서 단어 쓰기를 시작한 어린이는 초등학교에 오면서 문장과 다양한 표현을 접하면서 국어 교육을 받게 된다. 초등학교의 총 수업 시수는 주당 26시간인데, 국어 9시간, 수학 5시간, 세계의 발견(사회, 과학) 및 시민 교육 4시간, 예술 및 체육 6시간, 학습지도 2시간으로 구성된다. 비율상으로 볼 때 국어 시간이 34.6%를 차지해 다른 과목에 비해 배당이 많고 제일 중요한 과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 19.3%, 일본 20.6%, 영국 21.3%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높은 수치이다(한국 교육 개발원 보고서 1997). 국어 교과와 구성도 읽기, 쓰기, 어휘, 문법, 시 등 다양하게 세분하여 교과서도 2~3권이 된다. 9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 끝나는 수업에서 국어 교육은 오전에 배당하여 수업의 효율을 높이게 한다.

초등학교에서 기초를 닦은 국어 교육은 중학교에서는 구어와 문어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목표를 둔다.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시민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길러주는데 목표를 두어 기회 균등이라는 의식 조장, 감정적·미적·지적·도덕적 능력 개발, 자율성과 책임감의 인식,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인 관계 개선에의 기여, 단체 의식의 개발 등에 역점을 두어 국어 교육을 한다.

수업 시수로 볼 때 중학교에서는 총 27시간의 수업 중 1-2학년에 55시간, 3-4학년에 45시간의 국어 수업을 받으며, 고등학교에서는 1-2학년은 학생이 선택한 계열에 따라 4~5시간의 국어 수업을 받는다. 3학년에서는 국어 대신에 철학을 배우게 되며 2학년 말이 되면 국어에 대한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 대학 입학 자격 고사)를 치르게 되어 국어에 대한 교육은 고등학교 2학년에 마치게 된다.

중고등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은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르의 문학 작품을 다룰 뿐만 아니라 말하기, 읽기, 쓰기, 어휘, 형태, 구문, 철자 등 여러 유형의 교육을 통하여 논리적인 사고를 계발하고 명확한 의사 표현을 하도록 교육한다. 이러한 국어의 교육이 바탕이 되어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시험은 요약하기, 문학 텍스트를 읽고 해설하기, 논술하기 등 주관식의 문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4. 프랑스의 대학 과정

우선 프랑스에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Baccalauréat)를 통과해야 한다. 바칼로레아는 수도인 파리와 그 주변 도시의 대학을 포함한 파리권과 지방 대학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된다. 바칼로레아에 합격하게 되면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게 되고 대부분 자신이 지

원한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

대학에서의 학업 과정은 3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교양 과정에 해당되며 2년에 걸쳐 이수한다. 두 번째 단계는 대학의 3년째에 하는 학사 과정과 4년째에 하는 석사 과정을 일컫는다. 세 번째 단계는 석사를 마친 사람이 박사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인 DEA(Diplôme d'Etudes Approfondies : 직역하면 '深化 學習證'이라 할 수 있음)와 박사 과정을 일컫는다. 학사와 석사 과정이 각각 1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각 2년에 걸쳐 마칠 수 있고 2년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그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2년에 걸쳐 수행하는 교양 과정(DEUG : Diplôme d'études universitaires générales 대학 일반 학위증)의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교양 과정에서는 차후에 전공을 선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첫째 1학기가 마쳐지는 1월 말에 그 동안 학생이 학습한 결과를 분석하여 학생에게 적합한 방향으로 진로 지도를 해준다.

현대 문학 분야를 예로 들어 교양 과정의 수업 내용을 살펴보겠다(다음의 예시는 투르 Tours 대학의 경우이다).

1) 교양과정 1년차

1학기

(1) 교과 단위 1 : 기초 분야 (2학점)

- 20세기 프랑스 문학
- 프랑스 언어학
- 라틴 문학과 언어
- 비교 문학

- (2) 교과 단위 2 : 다른 학문 분야의 발견 (1학점)
 - 고전 문학과 언어(독일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분야의 기초 분야에 해당하는 수업
- (3) 교과 단위 3 : 일반 분석 방법론 (1학점)
 - 표현과 분석 기술
 - 분석 방법론

2학기

- (4) 교과 단위 4 : 기초 문학 (2학점)
 - 18세기 19세기 프랑스 문학
 - 라틴 문학
 - 비교 문학
 - (5) 교과 단위 5 : 기초 언어 (1.5학점)
 - 프랑스어
 - 라틴어
 - 외국어
 - (6) 교과 단위 6 : 분석 방법론 (1학점)
 - 문학 분석
 - 비평 분석 방법론
 - 시학과 수사학
 - (7) 교과 단위 7 : 일반 문화 (1학점)
 - 문화
 - 선택
- 제2외국어, 영화, 연극, 문학, 청소년 문학, 성경과 신화, 외국 연극, 라틴어, 그리스어, 스포츠

2) 교양 과정 2년차

1학기

- (1) 교과 단위 1 : 중세 언어와 문학 (1.5학점)
 - 르나르(Renart)의 소설
- (2) 교과 단위 2 : 프랑스 문학과 비교 문학 (2학점)
 - 16세기와 17세기의 문학
 - 비교 문학
- (3) 교과 단위 3 : 언어학과 언어 (2학점)
 - 프랑스어
 - 라틴어
 - 외국어
- (4) 교과 단위 4 : 선택 (1학점)
 - 1년차의 선택 목록에서 선택

2학기

2학기는 1학기의 교과 단위, 학점, 강의 시수와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는 담임 교수가 하는 것(cours magistral)과 실습 지도(travaux dirigés), 실습(travaux pratiques)으로 구분되며 1학점 수업은 일주일에 1시간 30분의 강의를 25주 동안 수강하는 것에 해당된다. 수업 평점은 강의 과목에 따라 별도로 내지 않고 교과 단위(UE : Unité d'enseignement)별로 묶어서 처리한다. 하나의 교과 단위 안에 여러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평점이 평균(20점 만점에 10점³⁾) 이상이 되면 일부 과목의 성적이 좋지 않

3) 프랑스에서의 성적 평점은 20점 만점 기준으로 16점 이상이면 아주 잘함(Très bien), 14점 이상이면 잘함(Bien), 12점 이상이면 괜찮음(Assez bien), 10점 이상이면 통과

더라도 통과가 된다. 수업 시수로 계산했을 때 1학년 과정에서는 237시간의 강의를 듣게 되며 2학년에서는 325시간의 강의를 듣게 된다.

교양과정을 마치게 되면 2단계인 대학 3학년 학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사 과정은 전문 과정이라고 말하는 석사 과정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다고 하면 석사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다. 학사, 석사 과정의 수업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언어 과학 분야를 예로 들겠다.

3) 학사 과정

언어 과학 학사 과정은 일반 언어학, 프랑스어, 그리고 외국어에 관한 언어학을 전공으로 다루는 학문 과정이다. 다음과 같은 내용의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 (1) 언어 단위 분석 (2학점)
 - 음성학
 - 형태론과 의미론
- (2) 기호론과 음운론 (2학점)
 - 음운론
 - 광고 언어를 통한 기호론
- (3) 사회 언어학과 생성 통사론 (2학점)
 - 프랑스어에 적용한 사회 언어학 분석
 - 생성 통사론 입문
- (4) 발화 행위 이론 (1학점)
- (5) 응용 언어학, 언어 발달과 병리학 (2학점)

가능(Passable)으로 판정된다. 10점 이하는 낙제이다.

- 언어와 생물학 : 문어의 처리
- 언어와 난청
- (6) 언어학의 어제와 오늘 (1학점)
- (7) 언어학의 다양성 (2학점)
- (8) 선택 과목 (2학점)
 - 모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학
 - 문학이나 인문과학 분야에서 선택하여 수강

4) 석사 과정

학과에서 설정한 2개 교과 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여기에 논문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는다. 2개 교과 단위는 다음과 같다.

- (1) 목록 A에서 2개의 세미나를 선택하여 수강함.
2개의 세미나 가운데 하나는 논문과 관련된 것이어야 함.
목록 A : 사회 언어학, 언어 병리학에 관한 언어학, 의미론과 문법, 심리 언어학과 학업 실패, 언어 분석 방법론
- (2) 목록 A나 목록 B에서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함.
목록 B : 재교육 방법론과 발음 교정법,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석사 강의, 현대 문학 석사 세미나, 고대 문학 석사 세미나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학사 과정은 석사 과정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학사 과정은 여러 강의를 수강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석사 과정은 2개의 교과 단위를 이수하고 여기에 논문을 쓰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수업 시수로 보았을 때 학사 과정에서는 14학점 350시간의 수업을 듣게 되며 석사 과정에서는 3개의 세미나를 수강하고 논문을 쓰게 된다.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면 제3단계인 박사 과정을 밟든가 아니면 직업 전선으로 뛰어들게 된다. 취직 분야는 전공과 상관 관계를 갖는데 언어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직종에 취직된다: 교육 계통, 행정부 계통, 시청각 분야, 신문 통신 계통, 문서 정리와 고문서 관련 업종, 기업의 내부 소통, 사회 문화 활동에서의 사회자.

5. 프랑스에서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

프랑스에서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IUFM (Institut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îtres)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우리 나라의 사범대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와의 차이는 이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즉, 석사 과정에 해당되는 수준인데 프랑스의 석사 과정이 1년에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이 과정은 2년으로 이루어져 있어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 이상의 지식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가르칠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쌓는다.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학습 상황이라는 틀 안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며, 교육학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 또 자신이 수행한 연구의 결과에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교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등 교육 관련 전반적인 사항을 학습하게 된다.

이 과정은 크게 3가지 분야의 교육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자신이 가르칠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가르칠 분야의 내용을 충분히 소화해내도록 학문 분야의 지식을 쌓고 아울러 교수법과 교육학적인 방법론을 배운다.

둘째, 인문 사회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심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에 관한 교육은 교육을 실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지식과 인간의 행동 양식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해준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교육 기술과, 교육제도,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교육자의 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

셋째, 교육기관에서의 실습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미래 교사들은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에서의 실행을 연결시키는 훈련을 하게 된다. IUFM에서의 첫 해부터 실습을 하게 되는데 과정의 목표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실습이 행해진다. 실습을 받아들이는 학교의 교육 위원회에서 실습생을 선별하며, 실습을 통하여 미래의 교사들은 교육의 절차나 과정 등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교수 방법론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2년 차에는 실습생들이 직접 현장에서 책임을 맡아 교육을 실행해보며 일반 교과목이 아닌 기술 계통에서 교육을 담당할 미래 교사들은 관련된 분야의 기업체에서 실습을 행한다.

IUFM에서의 2년간의 과정은 각 분야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르칠 것인가에 따라서도 교육 내용이 달라진다. 그러나 예를 들어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식, 교육 제도에 대한 지식과 같은 일부 내용은 공통적으로 교육된다.

IUFM의 첫 해 과정은 학생이 선택한 분야에서 치르는 외부 선발 시험을 준비하는데 학년말에 치르게 되는 이 선발 시험에 합격해야만 2년 차에 올라갈 수 있다. 2년 차에는 실습 교사라 불리게 되며 가르칠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을 쌓는데 중점을 둔다. 2년의 과정을 마치고 현장에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위의 교육 과정과 실습 이외에도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해야 한다.

즉, 이 과정의 특징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가르칠 학문 분야의 지식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으며 심리학, 철학, 사회학, 교육학 등 인간의 삶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

실습이 2년간에 걸쳐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습을 통하여 교육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고 과연 교육 활동이 학생의 적성에 맞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 대학 4년 중에 대략 한 달간의 실습 기간을 거치며 실제 수업을 담당해보는 것이 불과 몇 시간 되지 않는 것과 대조가 된다.

일선 교사가 아니라 교육 관계 기관에서 장학 업무나 학사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도 IUFM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에도 물론 학습하는 내용은 일선 교사가 되는 과정과 다르다.

이 과정을 마치고 교육 현장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선발 고사를 치러야 한다. 각 지방 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의 충원을 교육부에 보고하면 교육부는 전체 통계를 내어 수급에 필요한 채용 공고를 한다. 임용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지방의 관련 분야에 응시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한다. 서류 심사에서 통과되면 필기 고사와 구술 시험을 치른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인원의 숫자가 합격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선발된 인원이 처음 제시된 숫자와 차이가 나기도 한다.

프랑스에 현재 29개 대학에 IUFM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1999년도 통계로 볼 때 1년 차에 등록한 학생 수는 5,791명이며 이 가운데 311명은 초등학교, 5,480명은 중등학교 교사를 지원하고 있다. 선발 시험에 합격한 2년 차에 해당되는 실습 교사는 초등학교 268명, 중등학교 417명을 포함한 685명의 일반 교사 지망생과 미래 교육 장학사 지망생 25명이 있다.

6.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FLE)

프랑스는 자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1883년 알리앙스 프랑세즈(Alliance Française)를 설립하여 오늘날 약 130여 개국에 그 지부를 갖고 있다. 즉,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이미 백년 전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프랑스 대학의 정규 학문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은 1983년에 와서이다. 1983년 1월 25일자 교육부 장관령에 의해 설치된 이 과정은 그 후에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날 프랑스의 36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1) 교육 과정 내용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과정은 학사와 석사 두 가지 코스를 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학사와 석사 공히 각각 1년간에 마칠 수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석사를 마쳐야 한다. 이것은 대학의 일반 과정과 마찬가지로 석사를 진정한 의미의 전공이라고 생각하는 프랑스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선 학사 과정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현대 문학, 외국어 또는 언어 과학 분야의 학사 과정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사 과정은 하나의 선택 과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학위 수료증에도 현대 문학 또는 언어과학 학위로 명기되며 여기에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부가(Licence en Lettres modernes avec la mention FLE)”라고 표시된다. 등록은 특별한 시험을 치루는 것이 아니고 담당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석이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사 과정은 총 125시간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2학기에 걸쳐 있는 다음과 같은 3개 교과 단위(Unité d'enseignement)

로 되어 있다. 수업의 과목은 대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틀은 교육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다음의 예는 투르(Tours) 대학의 경우이다.

- (1) 세계 언어 가운데 프랑스어 (2학점)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와 언어 교육의 문제
 - 자연언어의 단일성과 다양성(문학과 언어학 전공 학생 대상), 또는 프랑스어학(외국어 전공 학생 대상)
- (2) 프랑스 문학과 문화 (1학점)
 - 프랑스 문학(문학 전공으로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은 예외)
- (3) 새로운 외국어 학습 (2학점)
 - 새로운 외국어 경험에 대한 언어학적, 교육학적 고찰 세미나
 - 새로운 외국어 배우기

반면 석사 과정은 5개 교과 단위로 된 350시간의 수업과 논문, 37시간 30분에 해당하는 교육 실습으로 이루어진다.

- (1) 프랑스 문화 인류학 (4학점)
 - 현대 프랑스 정치
 - 프랑스 문화
 - 프랑스 문학
 - 외국 문화
- (2)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학 (4학점)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학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수업에 비디오 활용
 - 언어 실습실 이용
 - 컴퓨터 수업

(3) 언어학 이론과 프랑스어 분석 및 의사 전달 실행 (4학점)

- 의사 전달 이론과 언어의 습득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구어로 배우고 가르치기
- 문법과 문법 교육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언어 교육

(4) 선택 과목 (2학점)

- 프랑스어권의 역사
- 자유 선택

(5) 논문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에 관련된 주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학사 과정에서는 수업 시간이 많지 않다. 그것은 이 학사 과정이 현대 문학이나 언어에 관련된 다른 일반 학사 과정을 선택한 다음 추가적으로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이 원한다면 석사 과정도 다른 과정의 석사와 동시에 수강할 수 있기는 하지만 수업의 양이 많고 논문을 써야 하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부담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수강 과목을 살펴보면 학사 과정에서는 프랑스어와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외국어를 학습하면서 겪는 경험이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경험과 동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수업은 학생들이 경험한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진행된다.

반면 석사 과정에서는 언어에 대한 지식보다 문화 인류학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랑스의 문화와 정치, 문학, 나아가 외국의 문화에 대해 학습하는 것이 큰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선택 과목에도 프랑스어권의 역사를 수강하도록 유도하여 언어에 대한 지식 못지 않게 문화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학 교과 단위는 외국어 수업에 필요한 교육학 이론과 아울러 수업을 위한 비디오, 언어 실습실의 활용과 또 최근 도입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을 위한 컴퓨터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어학 교과 단위에서는 전통적인 구조주의의 언어 분석이 아닌 의사 전달에 관한 구어의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업 중에 분석하는 언어 자료는 일반인들이 길거리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취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음성으로 된 자료를 쓰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사범대학의 외국어 교육과에서 학습하는 과목은 주로 외국의 문학과 외국어 문법 구조의 학습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나 역사, 문화 등에 대해서는 별로 다루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는 그 언어를 쓰고 있는 나라의 문화 요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문화 교육과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다. 외국어 교수법 이론의 변천을 보아도 전통적인 구조주의 방식의 학습에서는 단순히 언어의 문법적 구조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식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화용론적인 입장에서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을 강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의사소통 능력의 습득은 필연적으로 언어의 바탕이 되는 문화를 알고 있지 않으면 그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2) 과정 이수 후 진로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이수한 사람은 프랑스어권이 아닌 외국인들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일을 맡는다. 이는 외국에 설치된 프랑스 학교나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학교에서 프랑스인들을 상대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것도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프랑스의 학교에서 모국어인 프랑스어가 아닌 외국 학생들에게 프랑스어를 교육할 수는 있다. 교육부에서는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분야들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프랑스 국내에서는,

- 외국어 수업을 담당하는 대학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외국인에게 행하는 프랑스어 수업
- 프랑스에 이민온 자들과 가족 구성원에게 프랑스어 깨우치기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외국에서는,

- 성인에게 프랑스어 수업을 진행하는 기관
- 외무부에서 주관하는 언어 기관 또는 문화원
- 알리앙스 프랑세즈
-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외국어 학교
- 프랑스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외국 학교 기관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치거나 프랑스어 교육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

우리 나라 대학의 불어불문과에는 대부분 프랑스인 강사가 적어도 한 명씩 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위의 석사 과정을 이수하였으며 강사 자리가 나올 때에 지원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본다. 그리고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소속되어 우리 나라 고등학교 프랑스어 교사들의 언어 연수를 맡고 있는 어학 담당관도 이 과정을 마친 사람이다.

3) 임용 절차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각 교과 단위별로 평균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여야 한다. 논문은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하며 논문 성적도 일반 교과의

성적과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학년말에 학위증을 수여받게 되는데 졸업 후의 임용에 관해서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한다. 임용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선발 고사는 없다. 다음 Lyon II 대학의 수강 편람에 임용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Il n'existe pas de concours de recrutement de l'Education Nationale correspondant à cette filière, mais cette formation est prise en compte pour les pourvois de postes à l'étranger.

(이 과정에 해당하는 교육부의 임용 고사는 없다. 그리고 이 과정은 외국에서의 자리를 위해 고려되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교사들이 국가에서 관장하는 임용 선발 고사를 치르고 해당 학교에 임용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취직을 위해서 학생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접촉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치르는 선발고사에 응시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기관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설치된 대학에 신규 채용을 위한 정보를 보내 필요한 인원을 선발해 가기도 한다. 이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동창회 기구를 만들어 외국에 설치된 기관에서의 충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대체로 취직의 절차는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 학위증 사본과 함께 편지를 써서 해당 기관에 발송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편지를 보낸다는 것은 그 기관에 자리가 있다든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일 것이다. 해당 기관에서는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발 시험을 치르게 한다든가 개별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언급할 것이 프랑스에서는 임용시에 추천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대학의 지도교수 추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의 추천이 있을 수 있으며 추천자는 피추천자에 대한 도의적인

보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과정은 외국인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프랑스인 학생들이지만 외국인에게도 그 문은 열려있다. 외국인의 경우 학위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 프랑스어를 가르칠 사람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 나라 사람 가운데 이미 상당수가 이 과정을 마쳤으며 일부는 대학에 전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다.

7. 외국인 유학생

외국 학생이 프랑스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등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등가 위원회는 외국 학생이 그 동안 공부한 내용이 프랑스 대학에서 어느 수준에 위치하는가를 결정하는 곳으로 서류 심사로 이루어진다.

대학에 따라서는 외국인 학생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기 고사를 치르는 곳도 있다. 또한 프랑스어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의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프랑스는 영어의 TOEFL이나 TOEIC에 해당하는 것으로 DELF(기초 프랑스어 : Diplôme d'études en langue française), DALF(심화 프랑스어 : Diplôme approfondi de la langue française) 시험을 치르는데 이 시험은 프랑스 문화원에서 주관하며 외국인 학생이 프랑스의 대학에 유학하고자 할 때 프랑스어 실력을 인정받는 기준이 된다.

한국에서는 지난 1994년 처음으로 주한프랑스대사관 어학교육협력과(SLE)와 서울 알리앙스 공동으로 제1회 불어능력시험(DELF : Diplome d'Etudes en Langue Francaise)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이 시험은 모두 2단계로서, 1단계 시험인 DELF에 합격하면 증서가 발급되고, DALF는 DELF를 통과한 사람에 한하여 치를 수 있고 합격하면 증서가 발급된

다.

미국 TOFEL 시험의 경우엔 총점제이지만, 불어 능력 시험은 고른 능력을 요구하는 각 영역을 모두 통과하여야 한다. 이 시험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실시해 오던 것으로 한국에서는 최근에야 실시되었으나, 앞으로 점차 많은 대학과 에콜에서 이 시험의 합격을 요구할 전망이다.

DELf의 개설은 외국인들이 갖추고 있는 불어의 지식이나 구사력의 수준을 프랑스 교육부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DELf 시험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가위원회의 통제 하에 각 나라에서 출제 시행되고 채점된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각국에서 실시되는 시험 내용 및 그 결과를 통괄함으로써 69개국의 시험 시행 기관 간에 균형 잡힌 증명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DELf는 1급과 2급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1급과 2급에는 각각의 중서가 주어지며 2급은 1급을 취득한 후에만 치를 수 있게 된다. 이 중서들은 각각 그것을 구성하는 독립된 영역에 합격한 후에 취득된다. DELf 1급은 4개 영역(A1, A2, A3, A4)으로 구성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순서에 상관없이 시험이 실시되며 2개의 영역(A5, A6)이 있다. 일단 취득된 각 영역은 영원한 것이며 이것은 자격을 갖춘 심사위원단에 의해 합격증으로 발부된다. 즉 DELf 1급은 A1에서 A4까지 영역을 취득한 것이고 DELf 2급은 A5에서 A6까지의 영역이다.

DELf 시험은 응시자가 실제 상황에서 의사 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 및 언어 지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가능한 언어 사용의 실제적 상황에 관계된 시험 문제들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외국인으로서 DELf 6단계의 시험에 통과하게 되면 프랑스 대학에서 언어 시험을 면제받게 된다.

DALF(Diplome Approfondi de Langue Francaise) 시험은 응시자들이 문화 생활 혹은 직업 생활에서 얻은 것들에 대한 더욱 깊고 전문적인 능력

들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DALF의 불어 능력 수준은 학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서, DALF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 입학 언어 시험을 면제받는다.

DALF는 4개의 영역(B1, B2, B3, B4)으로 구성되는데, B1과 B2는 일반 불어이며, B3와 B4는 전문 불어로서 구두 시험과 필기 시험을 본다.

프랑스의 교육은 기회 균등의 실현을 목표로 모든 사람이 무료로 학교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대학(Université)은 모두 국립이며 사립 일 경우에는 Ecole이나 Institut라는 명칭을 갖는다. 사립의 경우는 등록금이 비싸지만 대학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연간 우리 돈으로 2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내며 이는 프랑스인이나 외국인이나 마찬가지이다.

수업은 프랑스인과 마찬가지로 강의를 수강하고 발표도 해야 되며 학년말에는 필기 고사를 치루어 평균 점수 이상을 얻어야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다.

8. 결론

프랑스의 언어 정책과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언어에 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어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을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으며 자국의 언어를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단순히 프랑스어의 사용을 확대하고 다른 외국어를 배척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는 다언어주의(plurilinguisme)를 채택하여 이를 유럽 공동체 국가에게 유포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어가

올바로 쓰이도록(bon usage) 노력하고 그 표현을 풍부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가 대학에 정규 학문의 장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에 대한 인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고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프랑스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대학 과정에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삽입된 것은 세계화의 추세 속에 언어와 문화에 대한 다원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 교육 과정을 보더라도 언어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문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이 같은 정도의 중요성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 구자억 외, 『세계의 교육 혁명』, 문음사, 1999.
- 국어학회 편, 『세계의 언어정책』, 태학사, 1993.
- 김진수, 「프랑스의 언어정책에 대하여」, 『프랑스어문교육』 제9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00.
- 서정화, 『주요 국가의 교육 행정 제도』, 한국교육개발원, 1980.
- 장한업, 「사범대 불어교육과의 위기와 불어교수법」, 『프랑스어문교육』 제2집,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1994.
- 정중화 편, 『유럽연합국가들의 교육제도』, 법문사, 1997.
- 최희선 외 공저, 『선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운영체제』, 성원사, 1991.
- 한국교육개발원, 『프랑스의 교육개혁』, 한국교육개발원, 1983.
- Porcher, L., *Le français langue étrangère, Emergence et enseignement d'une discipline*, Hachette, 1995.

인터넷 사이트

- 프랑스어 총괄위원회(<http://www.culture.fr/culture/dglf/>)
- 프랑스어 사용 관련법(<http://www.culture.gouv.fr/culture/dglf/lois/>)
- 프랑스어권(<http://www.france.diplomatie.fr/francophonie/>)
(<http://www.francophonie.org.fr/>)
- 청소년 정보 회관(<http://www.cidj.asso.fr/>)
- 외국어로서의 프랑스어(<http://www.fle.fr/>)
- 그로노블 대학(<http://www.grenoble.iufm.fr/>)
- 투르 대학(<http://www.univ-tours.fr/>)

■ Résumé

Sur la formation des enseignants de FLE en France

Cho, Hang-deok

La France fait beaucoup d'effort pour la diffusion de sa langue. L'Alliance française, fondée en 1883, est un établissement qui, installé dans environ 130 pays du monde, a fonction de diffuser la langue française. Mais, c'est seulement en 1983, 100 ans après la fondation de l'Alliance Française, que l'on a créé une filière de Français Langue Etrangère(FLE) dans des universités en France. C'est une formation destinée aux futurs enseignants de la langue française aux étrangers.

Pour devenir enseignant en France, on doit suivre la filière de l'Institut Universitaire de Formation des Maîtres(IUFM). C'est une formation que l'on suit après la licence, c'est-à-dire au niveau de la maîtrise. Cette formation se fait en deux années d'étude. Pour ceux qui ont passé avec succès le concours de l'IUFM, le gouvernement français a une obligation de leur fournir des postes d'enseignement. Par contre, ceux qui ont suivi la filière de FLE doivent chercher de leur propre moyen des postes d'enseignement. Il n'y a pas de concours pour le recrutement de FLE. Les diplômés de FLE peuvent enseigner la langue française seulement aux étrangers en France et dans des pays étrangers. Ils peuvent aussi trouver des postes dans des établissements comme l'Alliance française ou des centres culturels comme fonctionnaires pour l'enseignement du français.

Malgré cette différence de recrutement, le FLE a eu un succès considérable en France. Non seulement de nombreux étudiants choisissent cette filière, mais aussi on a commencé à décerner depuis quelques années le diplôme de doctorat. Parmi

des coréens, il y en a quelques-uns qui ont trouvé un poste d'enseignement dans des uiversités en Corée avec le diplôme de doctorat de FLE.